

## Chapter 38.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1960년대말 캘리포니아에는 정치적인 보수주의가 강하게 남아있었다. 1966-67년의 주지사 선거는 늘어난 범죄율, 높은 재산세, 그리고 시민들의 소요 등에 대한 경고가 울려 퍼진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Los Angeles의 Watts 지역에서의 흑인 청소년들에 의한 난동과 Berkeley 대학생들의 항의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을 매우 우려하게 만들었다. 인종간의 갈등 또한 Edmund “Pat” Brown 주지사가 인기있는 영화배우 Ronald Reagan을 상대로 세번째 임기를 추구할때 그 배경에 잠복하고 있었다.

캠페인 기간 이전에 할리우드의 Screen Actors Guild 회장이었던 Reagan은 그가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는 보수적인 비즈니스 후원자들이 제공한 선거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50개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던 Reagan은 TV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1967년, 자신은 거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지친 온건파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확신시켜줌으로써 그는 거의 100만표 차이로 Pat Brown 주지사를 패배시켰다.

Reagan의 캠페인 공약들에는 감세가 있었고, 유권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세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주지사는 정부가 더 절약하도록 할려고 했다. 그는 주예산을 10% 줄이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바로 폭풍같은 항의를 불러왔다. 1968년 Reagan은 실제로 그를 소환하려는 운동에 직면했다. 자신이 제안한 대학 예산 삭감안으로 캘리포니아의 교수 사회와 대치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막 주지사직을 승계했을 때 였다. 그러나 그의 소위 “반지식인주의”(anti-intellectualism)는 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들의 수업료를 인상할려고 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캠퍼스의 급진주의자들을 통제할려고 했다.



1964년에 Barry Goldwater를 위해 선거 운동중인 Ronald Reagan (오른쪽). 그해 Goldwater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다. Goldwater를 위한 캠페인은 Reagan 자신의 정치 경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어서 Reagan이 공공 구호기관들을 줄이고, 몇몇 정신 병원들의 폐쇄를 제안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소란에 직면했다. 이러한 항의가 일어날 때마다 그는 원래 발표했던 계획들을 잠시 보류했다. 그의 경제적인 목표들중 하나는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자금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복지 시스템에서 사기와 남용을 없애려고 한다”고 선언했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주지사의 제안들중 몇개는 사소한 것으로 보였다. 교량들에서 요금 걷는 사람들은 주에서 지급한 총을 반납하도록 강제되었고 총들은 매각 되었다. 주 공무원들의 여행과 전보, 전화, 심지어 장비와 보급품들 구입은 무척 제한되었다. 주지사 사무실은 도로지도들, 책자들, 심지어는 주립 공원들의 오락 잡지들마저 발행을 중지시켰다. Reagan 은 자신이 타자기 리본 비용으로만 5 만 달러, 그리고 재임 첫 두달동안에 전화비용 200 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주 소유 주지사용 비행기도 매각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agan 은 뿌리깊은 정부 프로그램들에 도전했다가, 주 의회가 규정한 예산 항목들을 삭감하는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1968 년초, “MediCal”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의료 프로그램은 매년 2 억 1 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Reagan 이 정신 건강 서비스 비용을 크게 삭감한 후, 다행히도, 번창하는 경제가 그 비용을 감당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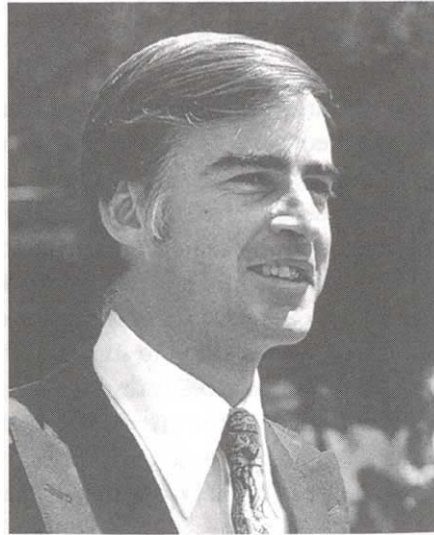
Reagan 주지사는 또 자신만의 값비싼 합의사항 (agenda)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간, 무기를 사용한 강도, 그리고 절도등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제안했다. 총기 규제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그였지만, 의회가 더욱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킬까봐 두려워하는 대중들을 직면했다. Black Panther 그룹이 (비록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무기를 소지했지만)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도중에 의원들 사무실로 쳐들어가 의원들의 정신을 빼놓음으로써, 그 법안의 통과는 확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Reagan 은 open-housing 법 (주거개방법: 주택 매매에 있어서 인종,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법)을 철회하고, 더 강력한 외설 법의 통과, 그리고 카운티 복지 사기과를 설치한 것 때문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Reagan 은 비즈니스에 대한 주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태스크포스와 위원회들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일한, 비즈니스계 사람들로 자신의 행정부를 구성했다. 그에 반해서, 노동조합들은 Reagan 을 혐오했다. 1968 년 수확철에 농장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주지사는 죄수들을 보내 수확을 돕도록 했다. 그는 또 수확기중에, 복지 수혜자들중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이런 행동들을 재배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이라 불렀다. Reagan 의 거친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임한 8년간 그는 정부가 커지는 것에 대해 단지 한정된 통제만을 할수 있었다.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의 시도들은 그에게 결정적으로 적대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의해 계속 패배 당했다. 정부내의 관성이 Sacramento 에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관료주의를 뒤엎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의원들은 Reagan 재임시 복지수혜자들 수가 실제로 늘어나게 했다. 주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휴일들에 근무하도록 할려는 주지사의 시도는, 그의 관점이 깊게 뿌리내린 공무원들의 관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주지사직을 물러날때, 공무원들의 수는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와 비슷했다. 게다가 Reagan 주지사의 마지막 해인 1974 년, 그의 예산은 100 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그의 소위 마구 써대는 전임자 Pat Brown 이 쓴 것의 두배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비록 주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Reagan 의 약속은 실패했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끈질김과 대중 인기를 안타깝게도 과소 평가했다. 그는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다음 주지사는 Pat Brown 의 아들인 Edmund G. “Jerry” Brown, Jr. (1975-83)였다. 아버지 Brown 시대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주의 프로젝트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들은 자진해서 긴축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self-imposed retrenchment). 실제로, Jerry Brown 은,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같은 옛날 뉴딜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 (New Dealers)의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철학” (spending philosophy)을 비난하면서까지, 정부가 할수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고 청중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비록 민권, 인종차별 폐지 (racial integration), 그리고 생태학 (ecology)의 주창자였지만, 그는 또 금욕주의자 (ascetic)이자 재정적으로 보수주의자로 밝혀졌다.

주지사가 되었을 때 겨우 37 세에 불과했던 Jerry Brown 은 자기는 전국적인 정치를 할 야망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1975 년, 그는 실업, 범죄, 증가하는 의료 보험 비용, 농장 노동자들의 곤경,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프리웨이들을 건설하려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로비들과의 싸움등, 캘리포니아의 문제들을 더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전국 주지사회의에도 참석하기를 거절했다.



1975-83 년 사이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Edmund G. “Jerry” Brown

그러나 단 1 년뒤, 젊은 Brown 은 “우리 자식” (favorite son) 후보로 대통령 예비선거에 뛰어 들었다. 그의 캠페인 스타일은 내핍 (austerity)과 이상주의 (idealism)를 합친 것이었다. 비록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Jimmy Carter 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음), 그는 적어도 한동안은 유권자들에게 Watergate 이후, 무기력하던 Gerald Ford 대통령 행정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저널은 Brown 을 “미국 정치의 어린 왕자”라고 했다. E.F. Schumacher 의 교과서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에 큰 영향을 받은 Brown 은 그의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큰 정부, 거대 비즈니스, 그리고 거대 노조들에 대한 베트남 전쟁 이후의 환상으로 부터의 휴식 (respite)을 약속하는듯 해 보였다. 그가 새 주지사 관저에 살기를 거부한 것이나, 주지사 비행기나 공식 리무진을 거부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체로 Protestant 들이 살고 있고, Richard Nixon 의 고향이며, “세계 최초의 자동차 교회” (drive-in church)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마저도 선 (Zen) 명상을 취미로 해본, 미혼의 전 신학도인 Brown 은 여전히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Reagan 주지사의 경우처럼 대중들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거의 마술과도 같은 해결책들을 기대했다. 1975 년동안, 의료 과오 위기 (malpractice crisis)가 의료계에 홍수를 이루었다. 이는 의료 과오 보험에 의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치솟는 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보험 업계가 요구하는 높은 요율을 감당할 수가 없어,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백명 의사들이 잠시 의료 행위를 중단했고, 주지사의 반응은 자기 행정부가 보험업계를 계속 “모니터’하겠다고 반복해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주지사의 소년 같은 매력이 그를 구식 인기 영합 주의자 (Populist), 그리고 희생하는데 몸 바친 가짜 스님 정도로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1976 년 California Democratic Council 에서 말했다. 의원 한사람은 젊은 주지사의 무 행동을 꾸짖으며, “그런 신성한척 하는 (sanctimonious) 연설은 너무 많이 들었소. 당신은 자기보다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소”라고 했다.

그러나 Brown 은 자신이 믿고 있던 몇가지들에 대해 행동을 하긴 했다. 주의 새로운 Office of Appropriate Technology 는 환경적으로 설계된 건물들을 옹호했고, 풍력, 태양열에 의한 히팅, 집에서

농약 없이 기르는 농사, 그리고 바이오 변환 (bio-conversion, 사람들 배설물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지원했다. 그는 또 수많은 여성들, 유색인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 단체 사람들을 위원회와 법원직들에 임명했다. 그러나 Brown은 더 확실한 이념을 보여주기를 거절한 것으로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모든게 제한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라는 주지사의 훈계는 동료 정치꾼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Brown은 농장 노조 조직자 Cesar Chavez에게 정신적으로 동지의식을 느꼈다. 1975년, 그는 Chavez의 United Farm Workers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준 Agricultural Labor Restrictions Act라는 선구자적인 법을 발기했다. 하지만 Brown은 그후 Chavez를 거의 어울리지않는 소수계 보호의 길로 밀어넣은 것으로 비난을 받았다. 멕시코계 사람들은 도시의 스페인어 통용 지역 (urban barrios)를 조직할 사람으로 Chavez를 쳐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록 Chavez는 효율적인 행정가로는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이전에 이루어놓은 훌륭한 업적이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2000년, 주지사 Gray Davis는 Chavez를 기려 주의 공휴일을 제정했다.

수십만명의 멕시코계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매년 캘리포니아로 계속해 밀려들어오고 있다. 1976년, Los Angeles 카운티는 인구가 700만에 달해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가 되었고, San Diego는 San Francisco를 세번째로 밀어내고 캘리포니아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 미국 남서부의 Sun Belt 도시들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현대 캘리포니아의 성장 이유들중 일부이기도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성장은 또 불법과 합법을 포함한 외국 태생 이민자들의 엄청난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Jerry Brown 주지사 시절은 또 많은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들이 “숨어있다가 밖으로 나올” (come out of closet) 용기를 갖게 됨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계속되는 관용을 목격하기도 했다. 1970년대경에는 San Francisco 주민들의 1/6이 동성애자들로 인정되었다. 1978년 시장 George Moscone와 Board of Supervisors의원이자 동성애자인 Harvey Milk가 관련된 비극이 San Francisco에서 일어났다. 두사람 모두 San Francisco 시청에서 불만에 찬 전 관리에 의해 총으로 살해되었다. 아직도 알려지지않은 두사람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어둠속에 묻혀 버렸다.

인구 패턴의 또 하나의 변화가 Brown 시절에 일어났다. 젊은 도시 전문 직업인들 (Young Urban Professionals)에서 나온 “Yuppies”라 불린,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를 향해 위로 이동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1960년대의 히피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몇몇 Yuppies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일터로 나온 예전의 히피들이었다. 이 “Baby Boomers”들 세대는 점점 더 저널리즘, 법, 의료, 그리고 금융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비록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 갱신 (urban renewal)과 대중교통 수단을 더 개발하는데 관심을 표했지만, 대부분의 잠재 통근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경전철 시스템의 혜택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젊은 Brown은 캘리포니아의 값비싸고 야심적인 프리웨이 프로그램은 수정되거나 심지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인플레이션과 세금 면제등으로 캘리포니아가 재정을 댈수 있는 프로젝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도시의 대중 교통 수단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늘로 치솟는 건설 비용 추정치를 보고 우울해졌다.

대기 오염과 싸우기위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엄격한 새로운 배출 기준을 제정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는 전형적인 새차의 배기가스를 자그마치 90%나 줄일수 있게 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관리하는 자동차 검사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낡은 고물 자동차들” (old jalopies)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단속했다.

이런 혁신들은 적절한 자금의 뒷받침에 의존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을 강타한 에너지위기와 뒤따른 연방 예산 삭감은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엄청난 공공 부분 노동력의 터전인 캘리포니아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이후 연방 국방비의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우울했던 시기에, 항공기와 관련된 직업은 전성기의 616,000에서 40만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부는 이러한 실업의 결과로, 캘리포니아 재정은 1979 년의 29 억 달러 흑자에서, 1983 년에는 5 억 4 천만 달러 적자가 되었다. 그러나, 심지어 캘리포니아가 가장 흥청거리던 시절에도, Brown 은 도로보수와 교육같은 꼭 필요한 부분의 개선에 재정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젊은 주지사의 태도는 캘리포니아의 불공평한 과세시스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했고, 이는 납세자들의 반란 (taxpayer revolt)을 촉발했다. 1978 년, 정부 과세의 격렬한 비판자인 Howard Jarvis 는 압도적으로 통과된 재산세 삭감 발의 (property-tax reduction initiative) (Proposition 13)를 내놓았다. 이는 그 후 여러해 동안 부동산에 대한 세액 추정 (assessment)을 안정화시켰다. 그 법안은 미국 전역에 걸친 세금 반란을 부추겼고, 교육이 주 예산의 최대 단일 항목으로 늘어난 시기에, 학교 채권 이슈들을 통과시키기가 힘들게 되어 버렸다. 주립 칼리지와 대학 시스템의 확장은, 비록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재정부담을 안겨 주었다. 교정 교육 과정들 (remedial education: 뒤쳐진 학생들을 특별히 더 가르치는 것)과 복지 지출이 Jerry Brown 주지사 임기 마지막 해에 더욱 증가했다.

캘리포니아는 당시 수입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87 년과 91 년 사이에 세금 징수액은 매년 4%씩 늘어났지만, 공공 지출은 해마다 6%씩 치솟았다. 1987 년 이전 5 년 동안에는 그 반대였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을 대기 위해서는 계속 경제적인 혁신이 필요했다. 이제 보게 되겠지만, 또 다른 새 이민자들의 파도가 들이닥쳐, 캘리포니아의 재정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